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서

10%에게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대책일 수 없습니다

인권운동사랑방은 신길2구역에 소재한,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33년 간 활동해온 인권단체입니다.
인권운동사랑방은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의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냅니다.

핸드폰 카메라로 위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의견서 전문 링크로 연결됩니다.
또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신길 2구역 재개발사업 현황

1) 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개요

- 구역 지정 공람공고 : 2008.12.24.
-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: 2020.3.4.
-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: 2025.9.12. (9.18.고시)

2) 신길 제2구역 거주 주거세입자 현황 및 이주대책

- **주거세입자 총 가구 수 : 2,087가구** (사업시행계획 인가일 기준)
-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 : 149가구
- 임대주택 대상 : 62가구
- 주거이전비 대상 : 58가구

※ 영등포구 정보공개청구 결과

3) '사전협의체' 일정

- 10월 29일(목) 오후
- 11월 5일(목) 오후
- 11월 12일(목) 오전

※'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'에 따름

2. 신길 2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의 문제점

주거세입자의 10%도 포괄하지 못하는 이주대책	권한도 계획도 없는 형식적 협의체 운영	주거세입자의 다양한 처지 고려 없는 이주대책
2008년 전부터 살았어야 이주대책 해당? 서울 지역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 3.7년! 18년이면 세입자들 이사 5번도 더 했다! 불가능한 조건을 강요하는 이주대책! ***10가구 중 1가구만 이주대책 있다? 사실상 이주대책 전무!***	누구와 무엇을 협의하나? 묵묵부답 구청! 세입자에게 '못 먹는 떡' 구경시켜주기만? 사업 추진 위해 세입자에게 희생만 권하는,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무 모르쇠 하는 구청! ***'궁금하면 문의하라'... 협의 과정 없이 끝? 사전협의체 횟수 채우는 요식행위뿐!***	기초생활수급, 주민등록, 무허가 건축물 등 제각기 사정이 다른데... 수백 명 모아놓고 한 번 설명하면 충분할 턱이 있나! 독거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이주 과정의 어려움은 지자체가 관내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책임져야 할 부분!

3. 신길 2구역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

주거세입자 이주대책의 포괄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십시오	지역사회 및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십시오	향후 이주와 철거 시점까지 세입자 지원 창구를 만드십시오
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세입자 대책 기준일을 '사업인정 고시일'로 정하는데, 도시정비법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?! ***최소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, 주거이전비 등 이주대책을!***	서울 성북구, 미국 시애틀, 영국 런던 등 개발 과정에서 세입자, 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등에 끼치는 차별적 영향 분석 제도화 ***개발로 누가 고통받는가, 무엇이 필요한가? 재개발사업의 영향을 평가해야!***	서울 노원구, 광명시 등 현장 주민 상담 및 이주 지원 역할 선례처럼, 영등포구도 주민의 알 권리와 주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 책무 다해야 ***재개발 지역 거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마련해야!***

<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주거권> 교육 안내

- 일시장소: **12/7월 저녁 7시,** 꿀잠 (도신로 51길 7-13) 지하강당 - 대상: 주거세입자 - 주최주관: 인권운동사랑방